

학교도서관의 설비와 운영

김 경 일

학교도서관의 최대특색의 하나는 학교교과과정의 차질에 있는 것이다. 관리 학교도서관이 이 특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학교도서관은 하나님의 성직을의 존재 가치 자체는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교육이 찾고자 하는 학교도서관의 가치란 자못 크다. 보아야 할 것이다.

새교육이 요구하는 충분한 교육효과를 기대하려면 학교도서관이 철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지난 날의 교육이 교사 중심과 교과 중심의 교육으로서 만족하여 왔으나 새교육은 개개의 생도의 천인적인 성장발전을 조장하는데 그 특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교육의 특성은 학교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계획과 교육환경을 요구하게 하는 것이다. 생도들의 자발적인 학습과 활동은 교사의 강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자극과 유발성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교육의 기도는 이와 같은 환경조성에서부터 출발하여만 되리라고 믿는다.

해방 43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교육에는 놀랄만하게 발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교육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중심인 학교도서관은 아직도 태동기 (胎動期)에서 유아기 (幼兒期)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더러 새교육을 제창실천하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학교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교육제도의 학립이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선진제국에 비하여 그 만큼 뒤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란 교과자료의 선물가를 블뿐만 아니라 정서교육의 좋은 표실도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심장이다"라고 하며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로 학교도서관의 설비와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기로써 설비와 운영에 관심을 기울수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학교도서관이 갖는 특성과 위치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한 본교 김교장은 본교 남관(南館舊校舍)을 개수하여 학교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학교도서관으로 개수할 남관은 전 평 1,250평의 득립단층건물로서 다소 본관과의 거리가 먼 점이 있으나 학교도서관으로서의 위치는 좋은 것이다. 먼저 남관을 학교도서관으로서 어떻게 수용하여 설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교장선생은 학교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행위할 수 있도록 개수설비(改修

(設備) 할것과 생도관을 수용하되 외국의 학교도서관기준을 철적하여 전 생도의 활동도를 충족할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개수몇 설비구상에 착수하였다. 드중의 설계도안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아래의 설계도와 여러 개수설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의 설계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표장선생은 도서관계의 전문가이신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장이며 학제도서관학회 어술분과위원장인 이봉순선생과 주한미교육사절단 도서관당당관이며 한세대학도서관학파 교수인 Miss. Swiger 선생을 직접 조정하시여 현장을 보면서 표시를 받아 결정한 것이다. 설계도에도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수용생도는 34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첫째 설비에 있어서

설비에 있어서 본교도서관은 신축건물이 많아기 때문에 많은 장애를 끌게 됨은 편하기 어려우나 종래의 도서관설비를 벗어나 각실을 완전히 딱지 않고 모두 개방하였으며 언제든지 필요한 방을 만들수 있게 하였다. 학교도서관의 기본설비로서는 독서실, 정리실, 사성각교 육실, 참고도서실, 신문잡지열람실, 소희의실 표직원연구실, 전시실, 음악감상실, 창고, 기록등이나 본교는 여성전률이라는 제한에서 생도전용도서관으로만 사용하게하고 표직원연구도서관은 본관교무실앞에 설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

1. 독서실은 청면입구를 통하여 좌측이 고등학교생도독서실이고 우측은 중학교생 도독서실로 중앙에 놓여 있는 참고도서서가로서 구분되어 있다.

2. 서가는 천내 네방의 벽을 이용하여 배가(配架)되며 서가의 종류는 고서가(高書架大段)와 창하서가(窓下書架三段)로서 설비되며 도서소장수는 만여책을 소장할수 있다.

3. 독서책상과 의자....는 한책상(쪽3자, 기리6자)에 생도 4명식 되도록 되어 있으며 책상과 책상간의 통로도 3자반으로 되어 있음으로 독서중의 통행에도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4. 청리실 및 대출대....는 청리실은 투명유리로서 짙어졌으며 내부에서의 작업이 적합특성에 방해가 않되도록 하였고 대출대에는 도서위원 3인이 앉도록 되어 있고 대출대 위에는 도서아의의자와 책상을 청리하여보관한 청리함이 놓여지게 되어 있다. 대출대는 생 도률의 관내외열람자무를 청결하게 할수 있도록 대출대도 고안하여 보았다.

5. 신문잡지실은 신문가(新報架)와 잡지가가 놓여지게 되며 의자는 모두

안락의자로서 만들었고 매일 매일 새로운 산문과 침자들이 전해되어 생도들의 마음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6. 신간소개장.....은 입구에 들어서면 가운데로 놓여 있으며 이장에는 생도들의 특서의록
을 유발하기 위하여 새로 도착한 도서들을 제때에 내용해제도 부여해 소개하거나 전
달하게 될 것이다.

7. 목록함....은 대출대근처에 놓이게 되며 도서선택에 안내자로서 그의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협성되게 될 것이다.

8. 계시판.....은 정면 입구에서 끝 눈에 띌수 있게 놓여지며 이계시판에는
학사, 생도들의 학년, 학급별로 등록교과, 도서관과 응해있어서 주제사항들이 계시될
것이다.

9. 참고도서서가....는 고등학교생도독서실과 중학교생도 독서실의 중간에
놓이게 되며 이서가에는 각종 사전, 통계표, 닌감, 기타등이 배열되어 생
도들의 자학자습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손씻는곳, 생도휴대를 보관장, 창고, 변소, 기타등도 필요
한 것이다. 이러한 설비의 비품제작에 있어서 외국같은곳은 이비 많은 경험을
갖았기 때문에 기본규격등이 정해져서 매우 편리하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러
지 못하다.

본교의 비품제작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등의 비품등을 참고로 하여
생도들의 독서분위기를 조성하여주기 위하여 미적관련에도 주목할뿐 아니라
오래 이용하는 것임으로 전교하게 만들도록 각별히 주의하였다. 그리고
벽공간과 독서실 곳곳에는 좋은 그림과 모전 있는 조각작품들이 놓이게 함으로 생도
들의 독서에 전속성을 보여줄것이며 독서에서 유발되는 사색을 넓혀 주자라
고 믿는다.

둘째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이란 유통하고 파려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훌륭한것이 아니니
옛날의 도서관은 파려하고 전본등을 소장하여 그 도서관의 자랑을 삼았으나

오늘의 도서판은 도서의 창고와 무임이 아니니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주는 만인
의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평가의 기준은 그 도서관의 운영이 잘되
는가 못되는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의 최대의
목적인 학교교과과정의 직업과 생도들의 표양을 높여주는 시설이라는 점에 특히 명심
하여 운영할 것이며 또한 일반공공도서관 특수도서관 대학도서관과 달리 구분하여
그의 운영방법이 연구되고 있는 방법으로써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1. 장서구성은 대부분해서 표사운영과 생도용으로 구성되며 도서선택에 있어서 심중을 기하
여 표사와 생도들로 구성된 도서선택위원회를 구성하여 선택할 방침이다. 도서선택
에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이 익숙한 도서가 지식전체를 통하여 그리
많이 출판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 도서출판 실정상으로 출판되거나 또 하나는
교과과정전개에 필요한 기본도서들이 부족하다는 점들이 매우 금신이 되는 것이다.

2. 도서정리에 있어서 먼저 결정하여야만 할 것은 도서 분류법 문제이다. 미국 일본 같은 곳에서는 각기 자기나라의 표준분류법들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 표준분류
법을 토대로해서 학교도서관적용표를 만들어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여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같은 통일된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도들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배운 분류법으로서 다른 학교에 전학하여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
게 되어 있으나 아직 한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함으로 각 학교도서관에서는 각
기 독자적인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교도서관의 도서분류법은 생도들의 앞
으로의 대학전학과 외국유학을 갔을 때도 본교에서 쌓은 도서관 경험으로 능히 손
색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우
리나라 각대학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미국의 도서관학자인 뉴이션생의 "뉴이신
친 분류법"을 다소 개편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이 "뉴이신친 분류법"이란 지
식의 전부를 다섯 부분하여 철학, 종교, 사회과학, 언어학, 자연과학, 음악, 예술
으로, 문학, 역사지리, 도구구분하고 이 다섯 부분한 전학문을 포함하고 있는
도서 (예: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종류화하여 지식의 전부를 분류한 것으로
로서 모두 각부문의 주제가 수자로서 기호화되어 있는 것이다.

③ 목록은 생도들이 도서관자료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목록에도 여러가지 작성, 편성방법이 있는 것이다. 본교 도서관에서 작성한 목록은 저자목록(著者目錄) 서명목록(書名目錄) 전명목록(件名目錄)과 사무용으로 시가목록을 만들게 될 것이다. 저자목록은 생도들이 저자의 이름을 알고 그 저자의 저작명을 찾을 때 이목록을 찾았다고 면 손쉽게 그 저자의 작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서명목록은 저자목록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명만을 할 때에 이목록을 이용하면 그 도서의 놓인곳을 찾을 수가 있고 다음 전명목록은 태양(太陽) 화성(火星) 가족제도(家族制度) 복건주의(封建主義) 등과 같이 전명을 카주로하여 만들어진 목록으로서 학교 도서관에는 꼭 필요한 목록이다.

생도들은 이목록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이 목록은 그날의 학파를 배운 가운데서 좀 더 자세히 알리지 할 때 이목록을 이용하면 도서관에 있는 어느 도서의 렘페시거세류(영폐시거) 생활이 오로지 주제의 차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 차료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록들은 생도들이 도서관에서 회방하는 도서와 차료들을 찾기하는데 나치 교통순번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외에도 단원참고서록(單元參考書目)이라 하는 것이 있다. 이 서록은 중·고등학교 각학년별 교과서를 트여로 단원을 선정해서 (예, 유엔에 있어서의 한국의 활동)이라는 단원이 선정되었으며 그 단원에 참고하는 도서의 차료명을 그 단원의 일에 기입하여 그 단원에 대한 연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만들어져야 함으로 각과 담당 선생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맨들어지는 것이다. 개판까지에는 시일이 너무나 족박함으로 개판화동시에 맨드려 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4. 생도들의 이용법

생도들의 도서관 입관절차는 먼저 도서관점문반구 좌측에 마련된 소켓팅곳에서 손을 닦고 입관하며 생도들의 휴대품은 일체 휴대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카운터"에서 생도의 학년별 출석번호(예: 학년 2반 48번이면 2248번이 된다)를 담당 도서위원회에 이야기하면 그생도의 독서 카드를 준다. 이독서카드로서 생도가 읽고 싶은 도서를 선택하여 판내에서 둑사하거나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여 수속을 받아야 한다. 이카드는 생도들의 독서지도에도 신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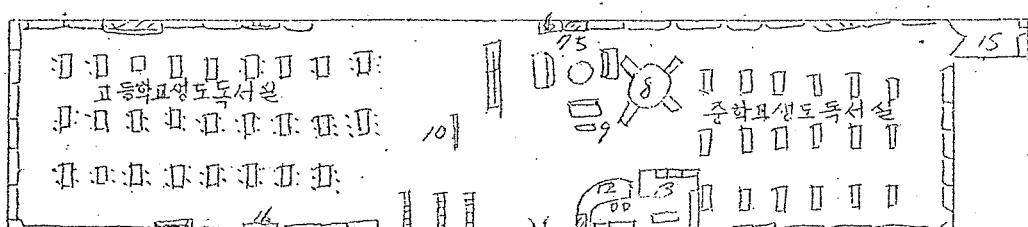
5 도서 위원회 활동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도들로 구성된 도서위원회의 활동인 것이다. 생도들로 구성된 도서위원회란 도서관으로부터 어떤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학우들을 위한 도서관봉사자이며 도서관 이용의 자도회원 정도를 블하는 것이다. 나 도서위원회는 학교호국전 도서관 생도들로서 결정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이 도서위원회들에게는 도서관 업무의 전반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하며 활동을 위한 조직은 도서청리반, 대출계 조사통제반, 활성정책반, 풍보반, 재본반 등으로 활성화되고 무금정료를 만들어서 규률적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5. 독서지도는 도서관 운영 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성장 기에 있는 생도들의 매일 매일의 독서는 지식과 사색의 뼈와 살이 되어 생도자신의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도개인에 대한 독서경향을 검토하여 전교사가 개별적인 지도를 하게 하는 것이 좋다. 생도들도 도서를 선택함에 있어서 선생에게 (48쪽 계속)

경기중고등학교 도서관설계도

총평수 165평
독립건물 - 층



1. 入書架
2. 生徒携帯音保管棚

3. 読書机上

4. 參考圖書架

5. 雜誌新刊開架席

6. 雜誌書架

7. 新聞거실

8. 圖書室

9. 書籍録繪
10. 捷取板

11. 施用器具

12. 카운터

13. 整理室

14. 洗面場

15. 便所

16. 安樂椅子